

흡인 (suction)

번호	절차	이론적 근거
1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40-60초 실시한다. 병원균의 전파를 막아 감염의 기회를 줄이기 위함이다.
2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흡인을 시행하기 위한 물품을 준비한다.
3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처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절차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
4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환자와 접촉하기 전,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20-30초 실시한다. 병원균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5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입원 팔찌와 환자리스트(또는 처방지)를 대조하여 대상자(이름,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안전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자 확인 절차이다.
6	대상자에게 흡인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가능하면 식사 전에 흡인을 실시하여 aspiration을 예방하도록 한다).	처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절차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
7	흡인압을 점검한다(성인: 110~150mmHg, 아동: 95~100mmHg).	흡인압이 과도하게 높으면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
8	흡인 시 체위는 의식 있는 대상자의 경우 반좌위로 하고, 무의식 대상자는 측위에서 간호사와 얼굴을 마주보도록 한다	반좌위는 심호흡과 폐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기침 유발을 쉽게 한다.
9	무균용기가 들어있는 세트를 열어 용기에 생리식염수를 따른다. ※ 참고) 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 30mL를 개봉하여 사용한다.	흡인에 사용되는 멸균증류수는 24시간 마다 교환하거나 1회 용기에 사용 시마다 덜어서 사용한다.
10	카테터의 개봉 부위를 약간 개봉한 후, 카테터와 흡인병이 연결되는 압력 조절구 쪽을 노출하여 흡인 line과 연결한다.	카테터의 개봉부위를 약간만 개봉하여 카테터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
11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환자와 접촉하기 전,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20-30초 실시한다. 병원균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2	양손에 멸균장갑을 낀다(필요에 따라 흡인 전 과환기 실시)	무균술을 지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흡인하면서 산소를 제거하여, SpO2 저하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흡인 전 과환기를 실시한다.
13	흡인 line을 잡을 손으로 흡인기를 켜 다음 흡인 line을 들고, 흡인을 할 손으로 포장지 바깥쪽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카테터를 꺼낸다.	무균술을 지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흡인을 할 손은 무균이 유지되어야 한다.
14	삽입할 카테터의 길이를 정한 후 끝을 생리식염수로 윤활 시키고, 흡인 line을 잡은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Y관을 눌러보아 잘 통과하는지 확인한다.	흡인기가 잘 작동하고 있으며 카테터의 막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분으로 마찰 없이 카테터가 잘 삽입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5	연결관을 누르고 있던 엄지손가락을 떼고 나서 인공 기도를 통해 카테터를 부드럽게 삽입한다.	카테터 삽입 시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카테터는 10-12cm만 진입한다. 12cm이상 진입 시 합병증으로 연축/무기폐/빈맥(미주신경 자극되어서) 발생한다. 카테터 진입이 5cm 이상 어렵거나 저항감이 느껴진다면 폐색 의심되므로 가슴을 충분히 해주거나 기관절개관을 변경한다.
16	결관을 막고 카테터를 잡은 손 엄지와 검지로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위로 뺀다(분비물 양상과 대상자의 저산소 상태를 살피면서 10~15초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흡인한다).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는 이유는 점막의 한 곳만 흡인하면 점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로 빼 기도내에 있는 가래 및 분비물을 제거하고,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0-15초가 넘어가면 저산소혈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17	흡인을 한 카테터는 무균용기(또는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에 있는 생리식염수를 다시 통과시킨다(분비물이 통과할 때 분비물의 양상을 관찰한다).	흡인 카테터에 생리식염수를 통과시켜 분비물에 의해 카테터가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분비물 양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한다. · 흰색, 회색: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되며 부비동이 함께 발병되었을 때 · 진한 노란색, 초록색: 세균 감염 징후. 두껍고 진한 가래의 경우 부비동염 또는 하부호흡기 질환 감염 유추. · 갈색: 흡연자. · 분홍색: 폐부종의 징조일 수 있으며 거품이 있을 경우 심장질환을 의심해야한다. · 빨간색: 혈액으로 기관지염 의심
18	분비물이 제거될 때까지 3~4회 같은 방법으로 흡인을 시행하되 20~30초 간격을 유지한다.	중간에 잠시 쉬는 것은 신체가 흡인으로 인한 저산소증을 보상하도록 산소를 보충하여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19	흡인이 끝나면 장갑을 벗고, 흡인기를 끈 다음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사용한 카테터는 감염성 폐기물에 분류하여 버린다.
20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40-60초 실시한다. 병원균의 전파를 막아 감염의 기회를 줄이기 위함이다.
21	수행 결과를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1) 날짜와 시간 2) 분비물의 특성, 양 3) 흡인 전후 대상자의 호흡양상과 반응	가능한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록하며 사실만을 기록하고 대상자의 행동변화, 상태변화, 증상 및 징후, 제공된 처치 및 검사 등을 기록한다.